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4년 12월 5일(목) 7시
관련자료: 사진자료

“고성능 영역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공식 진출

- 4 일[현지시각] UAE 두바이서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프리미어' 행사 개최
- ... '26 년 '내구 레이스' 공식 참여 선언 및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팀' 글로벌 최초 공개
- ... 최고 등급 하이퍼카 클래스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LMDh)' 프로토타입으로 출전
- ... 뛰어난 실력 갖춘 세계적인 드라이버 안드레 로터러, 루이스 펠리페 데라니 영입
- 제네시스만의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 집약한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첫 선
- ... 모터스포츠 분야에서의 제네시스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 방향성 엿볼 수 있어
- "우수한 고성능 차량 개발 기술력 활용해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고성능 프로그램 '제네시스 마그마'를 기반으로 모터스포츠에 진출한다.

제네시스는 4 일(수, 현지시각) UAE 두바이에 위치한 아르마니 호텔에서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 현대모터스포츠법인 시릴 아비테볼 법인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프리미어 행사'를 개최하고, 모터스포츠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네시스는 내구 레이스 중심의 모터스포츠 참가 계획을 발표하고,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을 글로벌 최초로 공개했다.

PRESS RELEASE

이와 함께 제네시스만의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을 집약한 ‘GMR-001 하이퍼카(GMR-001 Hypercar)’의 디자인도 첫 선을 보였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의 모터스포츠 진출은 브랜드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 중 하나"라며 "매 순간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모터스포츠는 우리에게 하이퍼스피드 정신을 가지게 해주면서, 대담하고 진보적인 브랜드를 추구하는 제네시스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기에 앞으로 함께 그려 나갈 미래가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모터스포츠 역사 상 가장 권위있고 도전적인 ‘내구 레이스’ ‘26 년부터 출전

제네시스가 참여할 예정인 내구 레이스는 완주를 위해 속도와 내구성 등 우수한 차량 성능은 물론 드라이버의 유연한 주행 실력, 고도의 전략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모터스포츠 중에서 가장 권위있고 도전적인 경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내구 레이스는 FI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국제 자동차 연맹) 주관의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과 IMSA(International Motor Sports Association, 국제 모터 스포츠 협회) 주관의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WeatherTech SportsCar Championship,)이 대표적이다.

제네시스는 2026 년에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 2027 년에 웨더텍 스포츠카 챔피언십 등 양대 내구 레이스 선수권에 각각 2 대씩 참여하며, 우수한 고성능

PRESS RELEASE

차량 개발 기술력을 선보여 나갈 계획이다.

제네시스는 최고 등급 하이퍼카 클래스인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Le Mans Daytona h, LMDh)'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출전할 예정이다. 르망 데이토나 하이브리드는 FIA 와 IMSA 가 공동으로 만든 레이스카 제작 규정으로, 해당 차량은 WEC 및 WTSCC 에 모두 참여 가능하다.

제네시스는 LMDh 기반의 프로토타입 제작 시 세계적인 레이스카 제조사 오레카(Oreca) 와 협업을 진행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차량 제작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레이싱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도 함께 공개했다.

팀명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레이싱을 대하는 제네시스만의 강력한 신념과 의지를 담았으며, 특히 공식 로고의 경우 한글 단어인 마그마 초성에서 착안해 한국의 정서를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제네시스는 소속 드라이버 안드레 로터러(Andre Lotterer)와 루이스 펠리페 데라니(Louis Felipe Derani)를 소개했다. 안드레 로터러는 지금까지 출전한 대회에서 총 84 회 우승과 166 회 포디움에 올라간 이력이 있으며, 루이스 펠리페 데라니는 2016 년 데이토나 24 시, 세브링 12 시 대회를 동시에 석권해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시릴 아비테볼 현대모터스스포츠법인 법인장 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은 "제네시스의 모터스포츠 참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흥미로운 도전"이라며, "현대모터스스포츠의 다년간의 우승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PRESS RELEASE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2026 년 WEC 본격 진출에 앞서 세계적인 레이싱팀 IDEC 스포츠(IDEC Sport)와 협업해 2025 년 유러피안 르망 시리즈(European Le Mans Series) LMP2(Le Mans Prototype 2)에 시범 출전할 예정이다.

■ 고성능 기술과 미학적 정체성의 결합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GMR-001 하이퍼카’는 고성능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의 결합을 통해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제네시스의 무한한 가능성과 고성능 럭셔리에 대한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제네시스 마그마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GMR-001 하이퍼카는 독특한 블랙 컬러 마감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통해 민첩한 차량 성능을 강조한다.

우선 차량 전면에서 측면까지 이어진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의 두 줄 디자인을 바탕으로 공기역학적인 구조와 볼륨감을 완성했으며, 이를 통해 어떤 장소와 각도에서든지 누구나 쉽게 차별화 된 제네시스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면부터 후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치형의 '파라볼릭 라인'이 적용돼 차량에 강인함과 안정감을 선사하며, 후면에는 액티브 스포일러가 장착돼 스포티한 느낌은 주는 것은 물론 고속 주행 안정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제네시스는 이번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이 향후 고성능 차량 디자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RESS RELEASE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의 고성능을 향한 열망과 디자인 DNA 를 GMR-001 하이퍼카 디자인에 고스란히 녹여내고자 했다"며 마그마 오렌지 컬러부터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섬세한 엔지니어링까지 한국인의 열정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담긴 GMR-001 하이퍼카가 레이싱과 만나 브랜드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는 이날 행사에서 GMR-001 하이퍼카 1:2 스케일 모델과 함께 ▲GV80 쿠페 콘셉트 ▲G80 EV 마그마 콘셉트 ▲GV60 마그마 콘셉트 ▲X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X Gran Berlinetta Concept) ▲X 그란 레이서 콘셉트(X Gran Racer Vision Gran Turismo Concept) 등 5 종의 모델을 함께 전시하며, 제네시스가 추구해온 고성능 차량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끝]